

정비석과 전집의 정전화 논리

최애순*

1. 서론
2. 한국문학전집의 역사와 정비석의 세대들
3. 전집에서 선택한 정비석의 작품을 통해 본 정전화 논리
4. 정비석의 대중적 권위와 문단 내의 위치
5. 결론: 전집의 정전화 논리와 정비석의 문학사적 위치

국문요약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성황당」과 『자유부인』의 작가로 평가된다. 「성황당」과 『자유부인』의 간극만큼이나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대중문학 작가이면서 전집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작가이며, 그의 작품 대부분이 수많은 장편 연애소설들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는 초기 작품인 「성황당」만 거론되고 있다. 『자유부인』이 불러일으킨 파장 때문에 문학사에서 대중문학가로 인식되어 그의 작품들이 현재 문학사에서 배제되었다면, 「성황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석이 문학사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단 한 편으로 문학사나 정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작가이다. 왜 정비석은 「성황당」의 작가로 살아남았을까. 단 한 편이라면 문학사 기술이나 전집의 선택에서 배제되기가 쉬운데 어떻게 문학사나 전집에서 끝까지 「성황당」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을까.

정비석이 「성황당」의 작가로 기억되는 데는 전집의 영향력이 크다. 전집에서 선택한 작품이 「성황당」이었고 정비석은 「성황당」으로 같은 세대의 작가들이 살아남지 않는 동안 전집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처럼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어떤 작품이 선택되었고 배제되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며, 대중문학이 어떻게 정전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잘 보여주는 작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집에서 정비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정비석의 어떤 작품들이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며, 전집의 정전화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전집, 정전, 자유부인, 성황당, 정비석, 선택, 배제, 문단권력, 문학사, 대중문학, 순수문학, 이데올로기, 세대)

1. 서론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성황당」과 『자유부인』의 작가로 평가된다.¹⁾ 「성

- 1) 연구자들의 정비석 연구는 『자유부인』과 「성황당」에 집중되어 있다. 『자유부인』을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진호, 전후 세대와 소설의 존재방식-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13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0; 김지연, 정비석 소설 『자유부인』의 인물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1; 김일영, 「정비석의 신문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풍속의 양상」, 『인문과학연구』4호, 대구카톨릭대학교 연구소, 2003; 최미진, 부인명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과 전병준의 『현부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21호, 2004; 이시은, 「전후 국가 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26호, 한국문학연구회, 2005; 정은영,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서사방식 연구-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6; 강찬모, 정비석 소설 연구-부인명 소설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성의 자각 과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강상희, 계몽과 해방의 미시사-정비석의 『자유부인』, 『이산과 귀향-한국문학의 새 영토』(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계 자료집), 교보, 대산문화재단, 2011.4.7. 정비석은 가장 최근까지도 『자유부인』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정비석은 『자유부인』의 작가로서 논의되고 있었다.

한쪽에서 『자유부인』의 작가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 정비석은 성황당의 작가로 거론된다. 정비석의 「성황당」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욱, 정비석의 문학-성황당을 중심으로, 월간문학, 1971.8; 백철, 한국단편문학의 40년(三), 『한국단편문학전집』Ⅲ, 백수사, 1958, 465~478쪽; 이어령, 성황당고, 『한국단편문학 100선』, 경미출판사, 1984; 김재남, 성황당에 나타난 작가의식, 『세종어문연구』3·4 합병호, 세종어문학회, 1987;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 출판부, 1991; 김홍영, 「정비석의 『성황당』 연구」, 1993; 노상래, 정비석 소설 연구-「성황당」의 욕망구조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8호, 현대소설학회, 1998; 안영숙, 정비석 문학의 에로티시즘 연구-「성황당」과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1999; 차봉준, 「정비석의 「성황당」에 나타난 생태학적 인식 연구」, 『인문학연구』, 숭실대, 2000; 김미영, 「1930년대 후반기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비교문학』35권,

황당』을 통해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가 하면, 『자유부인』으로 인해 대중문학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 이중적 평가 속에 놓인 작가이다.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1930년대 후반 『성황당』, 『졸곡제』의 토속적 자연미와 원시적 본연의 세계를 그린 순수문학의 작가로 데뷔하여, 『자유부인』을 쓴 시점으로부터 대중문학작가로 탈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작가가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사이를 오가며, 대중문학가이지만 정전에서 살아남았고 『자유부인』으로 대중적 명성을 얻었지만 후세 사람들에게겐 『성황당』이라는 순수문학가로 기억되며, 한국문학사 정전화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라는 양날의 칼을 동시에 품고 있다. 정비석은 정전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해주는 정전과 비정전의 경계에서 있는 작가이다. 따라서 정비석은 전집에 내재된 정전화의 논리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정비석의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에 걸쳐 있는 이중적 위치는 당대 비평가들의 『성황당』에 대한 양분되는 평가에서도 투영된다. 가령, 그는 초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의 본능을 아름답게 그”리다가 점차 “애욕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서 애정물 작가로 변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자의 작품경향의 정점을 이루었던 작품은 말할 나위도 없이 당시 퇴폐풍조를 그린 탓에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던 『자유부인』이다. 『성황당』과 『자유부인』의 상반된 평가는 후대 연구에서 『성황당』에서부터 ‘에로티시즘’, ‘성적 세계’가 발현되었다고 제기하면서 정비석의 작품세계를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으로 양분하는 것에서 벗어나 ‘애욕’이나 ‘성’이라는 한 축을 중심으로 연속된 작품세계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일기도 했다.²⁾ 그러나 정비석의 에로티시즘이 『성황당』에서부터 축적된 그의 작품의 일관된

2005; 오양진, 「정비석의 성황당과 김동리의 산화」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22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정비석의 연구는 이처럼 『성황당』과 『자유부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 이외의 작품들을 분석한 경우는 이미숙(정비석 초기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96), 김지영(정비석 초기연애소설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9), 정종현(미국 헤게모니 하 한국문화 재편의 젠더 정치학,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학위논문을 제외한 논문으로는 정종현의 것이 유일하다.

2) 안영숙, 정비석 문학의 에로티시즘 연구-『성황당』과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경향이리는 견해 속에서도 문학사 기술이나 전집편찬에서 「성황당」과 『자유부인』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성황당」과 『자유부인』의 간극만큼이나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대중문학 작가이면서 전집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작가이며, 그의 작품 대부분이 수많은 장편 연애소설들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는 초기 작품인 「성황당」만 거론되고 있다. 『자유부인』이 불러일으킨 파장 때문에 문학사에서 대중문학가로 인식되어 그의 작품들이 현재 문학사에서 배제되었다면, 「성황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석이 문학사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단 한편으로 문학사나 정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작가라 볼 수 있다. 왜 정비석은 「성황당」의 작가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문학사 기술이나 전집편찬에서 「성황당」 단 한 편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을까.

정비석이 「성황당」의 작가로 기억되는 데는 전집의 영향력이 크다. 전집에서 선택한 작품이 「성황당」이었고, 정비석은 「성황당」으로 같은 세대의 작가들이 살아남지 않는 동안 전집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어떤 작품이 선택되었고 배제되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며, 대중문학이 어떻게 정전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잘 보여주는 작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집에서 정비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정비석의 어떤 작품들이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며, 전집의 정전화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문학전집의 역사와 정비석의 세대들

정비석은 1911년 평북 의주 출생으로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졸곡제」가 입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이때 같이 등단한 작가가 김동리와 서정주였다. 김동리가 소설 부분에서 당선, 정비석이 입선, 서정주가 시부분 당선자였던 것이다. 1935,6년을 전후하여 20대의 나이로 등단한 작가들은 김동리, 정비석, 현덕, 김영수, 최인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1939년에 간행된 『문장』, 『인문평론』, 『단층』 등의 동인지를 통하여 나온 신인들로는 황순

원, 김이석, 최태웅, 임옥인 등이 있다.³⁾ 정비석은 전집편찬에서 주로 이 시기에 등단한 세대들과 함께 묶였다. 이들 세대들은 주로 1910년대 출생으로 나이도 비슷비슷하다.⁴⁾ 그러나 전집에서 누가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는 각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정비석이 들어간 전집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전집들에서 정비석과 그의 세대들이 어떻게 행보를 달리하는지 따라가 보기로 하겠다.

『한국단편문학전집』 전 5권, 백수사, 1958(1965년 증보신판).

제 1권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전영택, 나도향, 최서해, 주요섭, 박화성

제 2권 현진건, 이효석, 채만식, 계용목, 이무영, 강경애, 박영준, 김유정, 이상

제 3권 김동리, 정비석, 최정희, 김정환, 김영수, 황순원, 이봉구, 곽하진, 김이석, 최인욱, 최태웅, 임옥인

제 4권 안수길, 손소희, 오영수, 유주현, 한무숙, 강신재, 박연희, 장용학, 손창섭, 곽학송

제 5권 김광식, 정한숙, 이범선, 전광용, 오유권, 오상원, 박경리, 서기원, 최상구, 선우휘, 송병수, 한말숙, 하근찬

백수사 『한국단편문학전집』은 해방 이후 한국문학사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 전집에 실린 백철의 「한국단편문학의 40년」에서 각각의 작가에 대한 평가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때 백철은 정비석 작품을 향토성, 토속성 문학의 계보로 평가했다. 이후 정비석은 백철의 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문학사에서 토속성,

3) 백철, 「한국단편문학의 40년(三)」, 『한국단편문학전집』Ⅲ, 백수사, 1958년 초판(1965 증보신판), 466쪽.

4) 정비석 1911년 5월 21일 평북 의주 출생~1991년 10월 19일 사망.

김동리 1913년 11월 24일 경북 경주 출생~1995년 6월 17일 사망.

황순원 1915년 3월 26일 출생~2000년 9월 14일 사망.

최인욱 1920~1972년 4월 12일. 초기에는 동양적인 토속세계와 서정에 바탕을 둔 작품 서라벌 예술대학, 중앙대학 강사, 1957년 자유문학가협회 중앙위원.

최태웅 1917~1998년 8월 9일. 황해도 출생.

김이석 1914~1964. 평양 출생.

안수길 1911년 11월 3일~1977년 4월 18일.

백철 1908년 3월 18일~1985년 10월 13일. 평북 의주 출생.

임화노선에도 문협정통파에도 문학가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제 3노선을 걸었다.

향토성의 계보를 잇는 1930년대 후반의 「성황당」 작가로 남게 된다. 백수사의 『한국단편문학전집』에서 정비석은 3권에 김동리, 황순원, 김정환, 김이석, 최인욱, 최태웅 등의 작가와 함께 묶였다. 1960년대 전집에서도 정비석은 이들 작가군과 함께 묶인다. 1968 정음사의 『신문학 60년 대표작 전집』과 1969년 삼성출판사의 『한국단편문학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학 60년대 대표작 전집』, 정음사, 1968.⁵⁾

2권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최서해, 나도향, 박종화, 전영택, 주요섭, 박화성, 유진오, 이효석, 채만식, 이무영, 김유정, 계용목, 허윤석, 이상, 이주홍, 김송, 김정환, 김동리, 최정희, 정비석, 김영수, 최인욱, 황순원, 김이석, 이봉구, 최태웅, 안수길, 곽하신, 임옥인, 김광주, 박영준, 홍구범, 손소희

『한국단편문학대계』 12권, 한국문인협회 기획, 삼성출판사, 1969.

1 이광수 김동인 박종화 전영택 현진건 나도향 최서해/ 2 염상섭 주요섭 박화성 계용목/ 3 채만식 조용만 이무영 강경애 백신애 이상 이주홍 장덕조 유진오 이석훈 김말봉/ 4 김유정 김동리 정비석 박영준 김정환/ 5 최정희 허윤석 황순원 이봉구 박계주 곽하신/ 6 안수길 김송 김영수 김이석 최태웅 최인욱 김광주 임옥인/ 7 손소희 박용구 한무숙 박연희 유주현 이종식/ 8 김성한 강신재 손창섭 서근배 권선근 장용학 곽학송/ 9 이범선 김광식 전광용 오상원 이호철 정병우 오유권 최일남 박경수 서기원/ 10 박경리 선우휘 추식 하근찬 한말숙 정구창 구혜영 이문희/ 11권 최상규 승지행 박상지 최현식 남정현 김동립 이광숙 권태웅 이병주 박용숙 한남철 이영우 최인훈 강용준/ 12권 김승옥 손장순 백인빈 송상욱 서정인 정을병 박순녀 박상룡 박태순 김성일 김의정 최미나 유현중 홍성원 이창준 김의정 천승세

정음사 『신문학 60년 대표작 전집』에서는 이광수, 김동인에서부터 김동리, 황순원, 김이석, 최태웅, 최인욱 등 해방 이전의 작가들이 모두 함께 묶인다. 이에 반해, 삼성출판사에서 간행된 『한국단편문학대계』에서 정비석은 김동리, 김유정, 박영준, 김정환과 함께 4권에 묶이며, 황순원은 그 다음 5권에, 그리고 김이석, 최태웅, 김광주, 임옥인 등은 6권에 묶인다. 정비석은 김

5) 정음사 『신문학 60년 대표작 전집』은 정비석이 포함된 2권만 작가목록을 작성하였다. 3권과 4권의 작가 목록은 천정환의 한국문학전집과 정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2008.4, 99쪽에서 참조할 것.

동리와 함께 묶이고, 그와 같은 세대로 대우받았던 김이석, 최태응, 최인욱, 김광주, 임옥인 등과 같아지게 된다. 이 전집에서 김상일은 정비석과 박영준, 김정환을 「토속적인 인간상」으로 묶어서 해제를 달았는데, 그가 이 세 명의 작가를 한 부류로 묶어 설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⁶⁾ 이들을 한 권에 분류한 것은 이들 작가들이 공통적 작품 경향으로 묶인다기보다 좀 더 앞선 세대들이라고 판단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김동리와 김유정의 해설을 각각 염무웅⁷⁾과 유종호⁸⁾가 쓰고, 나머지 세 작가를 한데 묶은 것을 보면, 여기서도 같은 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김동리나 김유정이 훨씬 중요한 작가로 대우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정비석의 세대들은 전집에서 같이 묶이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의 작가들로 혹은 비슷한 작품 경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비석의 세대들이 서로 갈리는 때는 70년대 전집에서부터이다. 70년대는 문학사 기술 및 전집편찬의 수가 대폭 늘면서 한국문학의 정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⁹⁾ 70년대 들어서자마자 삼중당과 어문각에서 앞 다투어 전집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삼중당의 전집은 12권으로 되어 있는 반면, 어문각의 것은 전 51권으로 구성되어 방대한 분량으로도 주목을 끌었다. 삼중당의 이 전집은 한국문학의 정전화 기획에 한 계기를 제공하며, 여기 선택된 작가들은 이후의 정전화 과정에서도 살아남게 된다.

『한국대표문학전집』 전 12권, 삼중당, 1971. 편집위원 안수길 황순원 등
1 이광수 김동인 2 박종화 현진건 3 염상섭 채만식 4 박화성 최정희 5 이무영

-
- 6) “박영준, 김정환, 정비석 이 세 작가 작품을 함께 수록한 이상 하나의 공통된 범주를 설정하여 해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이 세 작가는 ‘토속적인 인간상’을 부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설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과연 이 작가들의 작품을 그러한 가설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을까(중략) 그러나 그 정도의 취재는 근대소설상 거의 모든 작가가 다 하고 있는 일이다.....”(김상일, 「토속적인 인간상」, 『한국단편문학대계』, 삼성출판사, 1969, 442~446쪽, 특히 442쪽 참조).
- 7) 염무웅, 「사아머니즘의 미학-김동리 편」, 『한국단편문학대계』, 삼성출판사, 1969, 435~441쪽.
- 8) 유종호, 「현대문학 속의 자기발견-김유정 편」, 『한국단편문학대계』, 삼성출판사, 1969, 430~434쪽.
- 9) 출판대중으로 등장한 한국문학, 『동아일보』, 1976.7.20.

김동리 6 심훈 황순원 7 안수길 박영준 8 임옥인 한무숙 손소희 강신재 9 유주현 이범선 장용학 전광용 10 손창섭 오유권 이호철 박경리 11 선우휘 이문희 서기원 최인훈 12 대표단편 13인집

『신한국문학전집』 전 51권, 현대문학사 기획, 어문각, 1971(1975 완간).¹⁰⁾

1 이광수 선집/ 2 염상섭 선집/ 3 전영택 주요섭 최화송 강경애 선집/ 4 채만식 선집/ 5 유진오 심훈 선집/ 6 계용목 김유정 이상 선집/ 7 이효석 선집/ 8 안수길 선집/ 9 김송 김영수 박계주 허윤석 선집/ 10 광하신 박용구 오영수 한무숙 선집/ 11 강신재 박경리 선집/ 12 중단편선집1/ 13 중단편선집2/ 14 여류작가선집/ 15 시선집1/ 16 시선집2/ 17 희곡선집1/ 18 평론선집1/ 19 아동문학선집1/ 20 수필선집1/ 21 박종화 선집/ 22 현진건 라빈 선집/ 23 이무영 선집/ 24 최정희 선집/ 25 박영준 선집/ 26 김동리 선집/ **27 김광주 김이석 정비석 최태웅 선집**/ 28 박연희 방기환 유주현 김성환 선집/ 29 김광식 선우휘 손동인 손창섭/ 30 오상원 오유권 이범선 선집/ 31 중단편선집3/ 32 중단편선집4/ 33 중단편선집5/ 34 신예작가선집/ 35 시선집3/ 36 시조선집/ 37 희곡선집2/ 38 평론선집2/ 39 아동문학선집2/ 40 수필선집2/ 41 김동인 선집/ 42 황순원 선집/ **43 김정환 이봉구 이주홍 최인옥 선집**/ 44 임옥인 손소희 선집/ 45 이종환 장용학 전광용 정환숙 선집/ 46 중단편선집6/ 47 중단편선집7/ 48 시선집4/ 49 희곡선집3/ 50 평론선집3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전 30권, 정한출판사, 1975.

18권 현역작가편 **김정환, 정비석, 김송, 김영수, 광하신, 최태웅, 임옥인**
편집위원 김동리, 안수길, 오영수, 조연현, 최정희

10) 이 전집의 출간년도는 기존의 연구자들에게 1969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1960년대 전집출판사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1969년에 현대문학사에서 기획하고 1971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1975년 완간되었다. 3차배분이 1973년 출간되었고, 김광주, 정비석, 김이석, 최태웅 선집은 바로 이 시기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서지에 1973년으로 되어 있다(『신한국문학전집』출간, 『동아일보』, 1973.11.24). “초간본 이후 4년 동안에 걸쳐 전 51권을 펴냈다”고 기사에 실려 있어 1975년 완간으로 유추된다(『신한국문학전집』, 어문각, 51권 완간, 『동아일보』, 1975.2.27). 따라서 전집출판 역사에서 1960년대가 아닌 1970년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대문학사 주간인 조연현 씨는 “지금까지의 문학전집이 소설 중심인데 비해 이 전집은 시, 평론, 희곡 등을 망라한 종합전집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작품 선정에 있어 최대한의 신중과 중정을 기하기 위해 범문단적인 의견을 집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신한국문학전집은 ①작고작가는 문학사의 맥락을 훑어보는 정도로 그치고 그 대신 현역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에 치중하며 ②대중소설을 제외하고 순수한 문학작품만을 수록하는 특색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신한국문학전집』출간, 『동아일보』, 1970.2.3).

중요 작가를 엄선한 것으로 보이는 삼중당 『한국대표문학전집』에서 정비석이 빠져 있는 반면, 많은 작가를 포함하여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어문각의 『신한국문학전집』에는 정비석이 들어가 있다. 어문각의 『신한국문학전집』을 기점으로 정비석의 세대들은 문학사적으로 갈리게 된다. 김동리, 황순원은 전집에서 주로 한 권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작가들과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이때부터 전집에서 김동리나 황순원을 최인욱, 김이석, 최태웅, 정비석과 함께 묶지 않으며, 정비석도 김동리나 황순원과 같은 권에 묶이지 않고 최인욱, 최태웅, 김광주, 김정한, 김이석 등과 함께 묶이게 된다. 전집에서 작가의 위치나 중요도 면에서 김동리, 황순원과는 급이 다른 작가군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김광주, 김이석, 정비석, 최태웅 선집이 간행되던 1973년은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가 출간된 해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국문학사』에서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70년대 문학사 기술에서 이들은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작가들에 불과하였다. 이때 문학사 기술에서 누락되었던 정비석은 이후의 문학사에서도 누락되거나 대중문학가로 언급되는데 그치고 만다. 기령, 김윤식·김우중 등이 편찬한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1989)에서도 정비석은 30~45년의 소설가 중에서도 ‘그 밖의 작가들’에서 방인근, 박계주, 김내성, 윤백남 등과 함께 다루어진다.¹¹⁾ 그렇게 본다면, 정비석은 문학사에서는 누락된 작가가거나 상당히 홀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사에서 정비석은 대중문학가일 뿐이었다.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배제되었으면서 전집에서 살아남은 작가인 셈이다. 어떻게 하여 문학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작가가 전집에서는 선택되었던 것일까.

『삼성관 한국현대문학전집』 전 60권, 삼성출판사, 1978.
 편집위원 김동리, 이어령, 유주현, 이형기, 김윤식

11) “1930년대는 한국문단에는 또 주로 신문연재를 통한 대중소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 특기할만한 일이다./『마도의 항불』로 이름을 드날린 방인근, 처음에는 성황당, 제신제 같은 수준 높은 소설을 발표했다가 그 후 대중소설 쪽으로 전향해 6·25 사변 당시 『자유부인』 등을 써 인기를 얻은 정비석과 박계주·김내성·윤백남 등이 이러한 부류의 소설가에 들어간다.”(장양수, 소설경향의 몇 가지 흐름-1930~45년 소설,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218쪽).

1 이광수/ 2 이광수/ 3 김동인/ 4 염상섭/ 5 현진건 나도향/ 6 박종화/ 7 주요섭
 심훈 최학송/ 8 채만식/ 9 이효석 유진오/ 10 박화성 임옥인/ 11 이무영 박영준/
 12 강경애 김광주/ 13 이상 김유정/ 14 김동리/ 15 황순원/ 16 이주홍, 이봉구, 박
 연희/ 17 안수길/ 18 손소희 한무숙/ 19 유주현/ 20 강신재 박경리/ 21 김정환/ 22
 최정희/ 23 오영수/ 24 손창섭/ 25 정한숙 곽학송/ 26 장용학 선우휘/ 27 김광식
 최일남 구영/ 28 이범선 이호철/ 29 전광용 남정현/ 30 오유권 박경수/ 31 오상원
 최상규 송병수// **51 단편선집 1 정비석 김이석 외 8인**/ 52 단편선집 2 전상
 국 박건상 외 8인/ 시선집 2 회곡선집 2 수필선집 2 평론선집 2

70년대 후반 삼성출판사에서 간행된 이 전집은 인세, 수록 작가 선정의
 의문점, 왜곡된 작품 평가에 이르기까지 문인들의 반발을 샀다.¹²⁾ 당시 문
 단에서 인정받고 있는 김성한, 최인훈, 김주영, 윤홍길, 조세희 등이 누락되
 어 문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이 전집에서부터 정비석과 같은 세대의 작가들
 은 전집에서 밀리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 때 배제된 작가들은 『현대문학』이
 나 한국문학자협회원이 아니라 자유문학자협회원이거나 『사상계』에서 활
 동하며 동인문학상을 받은 문인들이었다. 정비석이 김이석과 함께 단편선
 집으로 밀려나는가 하면 최인옥이나 최태응 같은 작가들도 이때부터 문학
 전집에서 사라지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12) 「대표작(代表作) 엄선에 유명(有名) 누락 한국현대문학전집에 문인들 반발, 『경향신
 문』, 1979.6.12. S출판사가 기획하고 있는 한국현대문학전집이 인세지불과 수록작가
 선정을 둘러싸고 많은 문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문학 7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기획 출판되고 있는 이 전집은 모두 60권 3세트로 구성, 5백여 작가의 장·중·단편
 소설과 시, 회곡, 수필 등 5천여 작품이 수록된 것. 김동리, 이어령, 유주현, 이형기,
 김윤식 씨 등 5명의 편집위원이 선정했다는 이 전집은 “문학사적 객관성에 입각, 높
 이 평가된 작가, 작품만을 엄선, 수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육당 최
 남선으로부터 70년 신예작가에 이르기까지 문학 전 장르에 걸친 대표작만 엄선됐
 다”는 이 전집에 문학사적으로 반드시 수록됐어야 할 여러 작가들이 소외됐다는 점
 에 있다. 이들 중에는 바비도」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김성한씨를 비롯해서 역시
 동인문학상을 받은 웃음소리」의 작가 최인훈, 그리고 이른바 70년대 작가로 각광
 을 받아온 김주영씨 등이 빠진 것이 좋은 본보기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번역
 출판돼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장마」의 작가 윤홍길과 난장이」연작으로 우리 문
 단에 회오리를 일으킨 조세희씨도 이 전집에서 제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전집은
 평문학상 수상 문제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는데, 제2회 수상사 박연희씨가 수상을 거
 부하였기 때문이다. 박연희씨가 수상을 거부한 이유는 애초 선정되었던 박모시인을
 제치고 수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집은 기획광고에서부터 인세 지불 문
 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며 문인들의 빈축을 샀다.

문학의 정전화가 다시 한 번 재정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편집위원에 김윤식, 이어령, 유주현, 이형기(한국문학가협회상) 등 김동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법하다.

『정통한국문학대계』 전 72권, 어문각, 1986 40권. 1988 완간.

1 이광수/ 2 김동인/ 3 염상섭/ 4 박종화/ 5 현진건 나도향/ 6 채만식 계용목/
7 심훈 이상/ 8 이효석 김유정/ 9 이무영 박영준/ 10 이주홍 김정환 **11 김동리**/
12 황순원/ 13 최정희/ 14 안수길/ **15 최인옥 박연희**/ 16 손소희 한무숙/ 17 김성한
선우휘/ 18 장용학 이병주/ 19 오영수 유주현/ 20 손창섭 이범선/ 21 정한숙
정광용/ 22 강신재 박경리/ 23 최일남 이호철/ 24 서기원 최인훈/ 25 하근찬 강용
준/ 26 박경수 정을병/ 27 전영택 유진오 김송/ **28 주요섭 최학송 정비석**/ **29 김광**
주 허윤석 최태웅/ **30 이봉구 김이석 광하신**/ 31 박용구 김광식 추식/ 32 송난희
이정호 박완서/ 33 광학송 오상원 오유권/ 34 이석봉 손장순 박순녀/ 35 최상규
이문희 친승세/ 36 송병수 송상옥 최인호/ 37 오학영 김문수 김승옥/ 38 서정인
이정준 이동하/ 39 유승규 홍성원 조선작/ 40 구혜숙 송숙영 서영은/

1980년대 어문각의 이 전집은 무려 72권이던데, 작가 선정 편집 배열이 조금 이상하다. 가령, 26권에서 박경수, 정을병까지 이미 1950년대 작가 선정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제되었던 식민지시기의 작가 전영택, 유진오, 김송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전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던 정비석은 이후 선정에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때까지도 정비석, 최태웅, 김이석, 최인옥, 최태웅, 김광주, 김정환 등은 같은 세대 작가들로 분류되며 전집에서 거의 같이 선정되거나 편성되었다. 그러나 정비석만 남고 나머지 작가들이 한국문학의 정전화에서 배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전집은 동아출판사에서 간행된 『한국소설문학대계』(전 100권, 1995)이다. 이 전집은 월북 및 남북 문인들을 문학사적으로 복권, 수록한 최초의 전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윤식과 박완서가 감수를 맡았고, 류보선, 서영채, 권상우가 편집위원을 맡았다. 이 전집은 또 한 차례 문학사에서 정전화의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진 전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비석은 주로 김광주, 최인옥, 최태웅, 김이석 등의 작가들과 함께 묶였다. 그러다 1995년 동아출판사의 『한국소설문학대계』에서는 같이 묶이던 작가들이 선택되지 못한 반면, 정비석은 살아남았다. 이것은 정비석이 이후 문학 전집에서 살아남는 결정

적 계기가 된다. 이때 30년대 후반의 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은 최인옥, 최태응, 김광주, 김정한 등이 아니라 이근영, 김만선, 현덕, 현경준 등의 동반작가 계열로 지금까지 전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름들이다. 김정한만 31권에 최정희와 함께 포함되며, 이때 시기별에 따른 권수 배열로 볼 때 30년대 후반의 작가가 아닌 50년대 작가로 분류된다. 반면 정비석은 이무영, 박영준과 같은 30년대 농민문학 작가와 함께 30년대 후반의 토속 작가로 분류된다. 정비석의 세대들로 그와 작품 경향이 비슷했던 작가들 중에서 김동리, 황순원을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비석만 30년대 후반의 ‘토속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전집에서 살아남았다.

문학사 기술에서는 누락되는 작가이지만(적어도 본격문학사에서 정비석은 대중문학가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대중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전집에서는 정비석의 인지도가 상당했다는 것을 드러낸다.¹³⁾ 정비석은 문학사와는 별개로 전집에서 살아남은 작가인 셈이다. 2005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20세기 한국소설전집』(편집위원 최원식, 임규찬, 진정석, 백지연)에서 정비석은 계몽목, 김동리, 황순원과 함께 묶였다. 함께 묶인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두 편 이상 들어간 반면 정비석의 작품은 「성황당」 단 한 편이다. 정비석은 「성황당」 단 한 편으로 김동리, 황순원과 같은 급의 작가로 묶인 것이다. 이것은 백철이 『신문학사조사』에서 정비석을 김동리, 황순원과 함께 다룬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세대 작가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해방 이후 문단의 거목인 김동리, 황순원과 같이 문학사에서 다루어졌으며, 창작과 비평사에서 그의 세대들은 다음 권에서 김이석, 최태응, 최인옥, 김정한, 정한숙, 유진오, 이효석 등이 함께 묶이는 것과 대비해보면, 정비석이 문학사에서 동세대 작가들과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이효철은 『문단골 사람들』에서 정비석과 1950년대로 한 장을 쓴다. 그만큼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발표했을 당시의 파장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를 회고하는 사람들에게 1950년대는 『자유부인』의 발표 전과 후로 나눌 수도 있을 만큼 정비석의 해로 기억될 정도로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정비석의 인지도도 상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전집에서 선택한 정비석의 작품을 통해 본 정전화 논리

한국문학전집 편찬의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김동리, 황순원과 나란히 같은 권에 묶이기까지 한 정비석은 의외로 작품선정에서는 배타적인 대우를 받았다. 단편만 인정받았으며, 장편은 단 한 편도 전집이나 심지어 문고본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심지어 삼성출판사에서 간행되었던 장편 위주의 삼성문고본(삼성출판사, 1972)에서도 정비석은 배제되어 있다. 최인옥의 초적¹⁾이나 김이석의 『아름다운 행렬』처럼 같은 세대의 장편들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석은 아예 빠져 있다. 이것은 정비석의 장편은 전집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정비석의 작품들 중 어떤 것이 전집에서 선택되었고 배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문학전집 편찬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와 정전화 논리가 작동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단 그의 작품 중 단편만 전집편찬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의 장편들이 전집의 정전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969년 성음사에서 출간한 『한국장편문학대계』는 전 1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내성, 김말봉 같은 대중문학가가 포함되어 있다. 15권에는 그와 같은 세대인 김이석의 『난세비화』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정비석은 빠져 있다. “오늘날 각종 매스미디어의 범람이 이른바 대중문화의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유무형의 저항이 비록 대중문화의 급격한 타락을 제어하게 고려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 순수문학 혹은 본격문학과 통속, 대중문학의 대립적인 개념을 더욱 첨예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문학이 대중문화의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이에 따르는 독자층의 개발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전기한 바와 같은 방침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라는 전집 간행사는 대중문학을 포함한 목적이 그것의 질적 타락을 막기 위함이라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전집에서 수용하여 대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그들이 선택한 작품은 적어도 대중문화의 질적 타락을 막고 새로운 독

지층을 형성하여 전집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출판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에 정비석의 작품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작품이 역사소설과의 경쟁에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김내성의 『청춘극장』이나 김말봉의 『찔레꽃』보다는 전집에 포함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으로 간주되었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현대문학에서 기획한 『신한국문학전집』에서 대중문학을 배제한 순수문학만을 수록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게 한다. 정비석의 작품 중 1950·60년대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것은 장편 연애소설인데, 전집에서는 그의 수많은 장편소설 중 단 한 편도 선택되지 않았다. 장편으로 100권의 구성에 달하는 『삼성문고』(1972)에서도 정비석의 작품은 선택되지 않았다. 최인옥의 『초적』이 세 권 분량으로 포함된 것에 비하면 정비석의 유명세에 비해 그의 장편은 홀대를 받았다.

전집에서 정비석의 장편이 선택된 경우는 그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뿐이다. 그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간 경우는 민중서관에서 간행된 『한국문학전집』(1958)과 삼성당에서 간행된 『한국문학전집』(1993)에서이다. 이때 그가 선택한 작품은 『고원』, 『청춘의 윤리』, 『애정무한』, 『장미의 계절』 등으로 장편 연애소설 위주이다. 여기에 단편 「성황당」이 끼어 있다. 문제는 그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선택한 작품이 친일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친일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청춘의 윤리』 같은 작품이 전집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없는지, 대치되고 있는 부분은 개작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단행본과 전집에 실린 작품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개작을 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친일적인 부분은 그대로 실었다. 나라의 일군으로 전쟁에 나간다는 설정이나, 전쟁에 나갈 일군을 길러내는 보육원의 내용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실려 있다. 다만, 대동아전쟁이 전쟁으로 바뀌었고, 총후국민이라는 부분만 삭제되었다. 일제 말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전집에 실릴 때 개작과정 없이 그대로 실려 있다. 오히려 신경을 써서 개작한 부분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다.

(가) 성호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일체 청산하고, 의사로서의 보다 의의있는 생활, 성준의 부탁대로 **총후국민으로서** 보람있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마침내 육군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청춘의 윤리』, 매일신보사, 1944, 347쪽)
 성호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일체 청산하고, 의사로서의 보다 의의있는 생활, **청춘으로서** 보람있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마침내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1958, 356쪽)

(나) 현주는 장질부사로 앓기전까지 모 미국선교사 부인의 비서(秘書)로 있었지만 앓고 있는 동안에 **대동아전쟁**이 벌어져서 인제는 정말 갈곳이 없었다.
 “우리집으루 와서 얼마간 휴양하면서 예기를 분도다 가지구 내말대루 그 사업을 맡으라니깐 그래. **서양놈의 종사리** 그만치 해줬음 인제 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 짚우?”(『청춘의 윤리』, 매일신보사, 1944, 6쪽)
 현주는 장질부사로 앓기 전까지 모 미국 선교사 부인의 비서(秘書)로 있었지만 앓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벌어져서 인제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우리집으로 와 얼마간 휴양하면서 예기를 북돋아 가지구 내 말대루 그 사업을 맡으라니깐 **남의 종살이** 그만치 해 줬음 인제 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짚우?”(『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1958, 221쪽)

(다) 나날이 후송되어 오는 상이군인(傷痍軍人)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웠다는 엄숙한 사실앞에 저는 머리를 수그리며 제 온갖 힘을 다하여 그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청춘의 윤리』, 매일신보사, 1944, 373쪽)
 나날이 후송되어 오는 상이군인(傷痍軍人)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제 국가나 제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웠다는 엄숙한 사실 앞에 저는 오직 머리를 수그리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힘껏 싸울 수 있는 그들의 행복한 처지가 부럽습니다.**(『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1958, 367쪽)

예문 (다)에 이르게 되면 일제 말에 대동아전쟁에 동원되었던 상황은 한국전쟁과 겹쳐지면서 마치 일본이 아닌 한국을 위해 싸우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한국문학전집에서 ‘한국전쟁’은 과거 친일을 회색시키고 친일문학을 배제하는 논리를 세우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것은 친일문학이 아니라 반미 감정이었다. 이것은 민중서관이 편찬되던 1958년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전집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만, 시대와 무관한 것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전집에 반영된 이데올로기는 유동적이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변화해서 오히려 정전화의 논리를 세울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전집에서 주로 선택된 정비석의 작품은 「성황당」, 「졸곡제」, 「제신제」 등 초기 단편이었다. 그러나 정한출판사에서 간행된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은 “후기 15권 현역작가편도 일일이 작가 각 개인에게 자신의 대표작을 자선(自選)토록 하여 집대성했기 때문에 동계의 어느 전집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월등하게 충실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간행사에서 밝혔듯이, 작가 자신이 스스로 작품을 선정했다. 이때 정비석이 선정한 작품은 졸곡제, 「여죄수의 수기」, 「아내의 항의문」이다. 다른 전집에 비해 작품 선정이 이질적이라고 가늠된 것은 그것이 편집위원이 아닌 정비석이 선정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정비석은 자신이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주로 후일담 형식이나 친일적 성향, 죄의 고백 같은 작품을 택한 경우가 의도적이라고 판단될 만큼 잦았다. 「아내의 항의문」은 ‘민족 반역자’인 남편과 이혼하려는 여자가 남편에게 쓴 글이다.

금순이는 백만원이라는 돈에 혹해서 연상 웃음만 웃었지만, 저는 목을 놓아 통곡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모리배의 아내!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그 칭호를 조금도 두렵게 생각지 않는 금순이를 저는 부러워도 하고, 경멸도 했습니다. 오랫동안의 철사에서 해방되어 청천백일의 날로 맞이한 오늘에 무슨 짓을 못해서 하필 모리배입니까? 그 백만원은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피를 빨아낸 것입니까? 눈 바로 박힌 사람치고 해방 후에 모리배 노릇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고 하시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양심을 양심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의 참다운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야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랬으니 생활 안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설혹 좀 굶는다기로 차마 모리배 노릇이야 어떻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한국대표 단편문학전집 18, 정한출판사, 1975, 164쪽)

「아내의 항의문」은 결혼 첫날밤부터 외박을 하여 줄곧 가정사에 무관심한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하는 여인의 편지이다. 늘 가정사에 무관심했고 외박이 잦은 남편에게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어느 날 찾아온 동창생 금순에게서 남편과 금순의 남편이 한 패가 되어 일본인이 남기고 간 집을 사고 팔면서 백만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접하고 난 이후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민족의 반역자, 모리배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한다. 정비석이 이처럼 민족의 반역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작품을 쓰는 것 역시 자기변명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대표작이라고 전집에서 자신이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의도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정비석 자신이 선택한 작품들 사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앞서 민중서관본에서 친일적 성향이 강한 『청춘의 윤리』와 후일담 형식의 『고원』을 동시에 선택하여, 작품 선정에 있어 친일의 정서는 그의 기준이 아니었나 싶다가도 후에 다시 「내의 향의 문」 같은 작품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대중의 반응에 따라 전집에 수록할 작품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그가 택한 작품은 전적으로 전집의 다른 편집위원들과는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전집에서의 위치는 문학사의 기준이나 문학적 가치와는 다른 지점으로부터 확보된다는 사실에 무게감이 실린다.

그의 장편이 전집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전화 과정에서 대중문학을 철저히 배척하였다는 말과도 같다. 『현대문학』지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신한국문학전집』(어문각, 1973)은 “대중소설을 제외한 순수한 문학작품만을 수록한다”는 의도로 편찬되었다. 작품 선정위원회에 박종화, 이은상, 김현승, 백철, 유치진, 박두진, 서정주, 윤석중 등 28명으로 구성되었고, 소설 편집위원으로 박영준과 전광용이 들어갔으며, 모든 장르를 총괄하는 종합 편집위원으로 조연현이 참여하였다. 이 때 정비석이 들어갔으며 선정된 작품은 「색지풍경」, 「고고」, 「한월」, 「제신제」, 「귀향」, 「운명」, 「비오는 거리」, 「모색(暮色)」이다. 정비석의 작품을 전집에서 선정했을 때 그래도 가장 고려를 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성황당」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해방 이후의 단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후반의 초기 소설들에 국한된 정비석의 입지를 조금이나마 넓혀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선정에서 정비석은 대중문학이 아닌 ‘순수문학’의 위치에 놓인다. 정비석 자신은 전집편찬에서 대중문학이라고 하여 폄하된 자신의 장편을 줄곧 포함시켰지만, 전집편찬의 이데올로기에서 그의 장편은 철저히 배제되고 대신 초기 단편 「성황당」이 1930년대 순수문학의 지표로 살아남게 된다.

「성황당」이 발표되었을 당시, 동시대 비평가들은 문체의 신선함이나 토속적 자연세계는 인정하면서도 순이의 목욕장면과 같은 애욕적인 성적 세

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남천, 백철, 조연현이 「성황당」의 성적 묘사에 대해 “애욕이나 성의 세계로 달릴 중요한 요소가 감축되”¹⁴⁾었다고 한 것이나 한 가지 이단적인 요소로 여주인공 순이가 개천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중 심해서 그린 성적 분위기에 대해 “한 알의 악마의 종자가 싹트기 시작한 것”¹⁵⁾이라 한 것이나 “한 개의 나체취미”¹⁶⁾라고 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은, 이후 정비석의 세계가 대중문학이나 애정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문단에서 성을 다루는 것이 거의 금기에 가까웠으며, 정비석의 『자유부인』으로 대표되는 장편 대중문학에 대한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성황당」의 토속적 자연 세계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성적 묘사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문학 정전화의 논리였다. 그런 정전화 논리 속에서 「성황당」은 애욕물이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순수문학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문학사 기술이나 전집편찬의 해설에서 「성황당」이 토속성, 향토성을 표방하는 작품으로 규정되는 것은 바로 대중문학을 배제하고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성황당 의 정비석은 당대 비평가 백철에 의해 1930년대 후반 김동리, 황순원과 함께 토속적 세계를 그린 작가로 평가된 후, 1971년 김병욱에 의해 다시 한 번 1930년대 후반의 작가로 자리매김한다.

1935년을 전후한 한국문단에 하나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준 것은 착실한 신인들의 등장이었다. 그들은 침체되어 있던 문단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1939년의 『문장 과』인문평론 의 등장을 촉진한 밑거름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본격적인 신세대론이 문단의 이슈로 등장해서 많은 논란이 오고 갔다. 소위 신세대들은 문학을 인간 본연의 생명력의 구현에 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 생명력을 문학의 본질로 파악한 셈이다.(……)/ 이러한 세대논쟁 중에 비석은 「성황당」을 들고 나왔다. 훌륭한 작품은 이론을 압도한다. 바로 그런 경우가 「성황당」이다. **이 한 편의 단편은 비석이 세대논쟁을 하고 있는 한국문단에 대한 신세대의 무언의 확증 같은 것이었다. 이 점이 바로 단 한 편이지만 「성**

14) 김남천, 신진 소설가의 작품세계, 『인문평론』, 1940.2, 63쪽.

15)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 534쪽.

16) 조연현, 애욕의 문학, 『백민』, 1948.10, 158쪽.

황당」으로 하여금 문학적 가치와 아울러 문학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게 한 점이다. 작품의 배경, 소재, 그리고 문체 등이 주는 신인다운 청신함과 그 주제 또한 이러한 것을 조화 통일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충만한 인간본연의 생명력은 예민한 지성인이라면 질식할 것 같은 당시의 분위기를 회생시켜 주는 활력소가 되기에 족한 것이었다.¹⁷⁾

정비석은 해방 이후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문학사적으로는 「성황당」 단 한 편으로 1930년대 후반의 원시적 생명력을 그린 토속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김병욱은 더불어 작품의 배경, 소재, 그리고 문체가 잘 어울려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한국 단편의 성좌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 단언했다.¹⁸⁾ 전집편찬에서 정비석의 작품 중 「성황당」이 살아남은 논리는 단편 위주의 한국문학사와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정전화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4. 정비석의 대중적 권위와 문단 내의 위치

정비석의 세대들이 전집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정비석은 「성황당」 단 한 편으로 끝까지 살아남는다. 전집편찬에서 정비석은 작품 선정에서는 배타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작가 선정에서는 꼭 들어가야 할 작가로 분류되었는데, 그 연유는 무엇이었을까. 『자유부인』 작가 정비석의 대중적 권위와 문단 내에서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단의 지형도가 그려지고 문단권력이 형성되고 있을 무렵, 정비석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 좌익과 우익, 한국문학가협회와 자유문학자협회, 『현대문학』과 『자유문학』, 순수·통속 논쟁, 순수·참여 논쟁, 그 사이에서 정비석은 어느 쪽에 몸을 담았을까가 궁금하다. 정비석의 문단 내에서의 위치는 사상적 색깔이 애매모호하다.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했다가 백철, 김광균, 장만영, 박영준, 이무영, 박계주 등과 함께 탈퇴하였고, 한국문학가 협회에서 예술원 파동으로 자유문학자협

17) 김병욱, 정비석의 문학, 『월간문학』, 1971.8, 256쪽.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18) 김병욱, 정비석의 문학, 『월간문학』, 1971.8, 257쪽.

회가 갈릴 때, 정비석은 ‘자유문학자협회원’이었다. 해방 이후 문단 권력의 양대 지형인 백철류와 김동리류로 본다면, 백철 노선에 속해 있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김동리 노선에 닿아 있다. 순수·통속 논쟁에서는 통속문학에 속하는가 하면, 순수·참여 논쟁에서는 순수문학에 속한다. 이처럼 정비석의 문단 내에서의 위치는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상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집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다.¹⁹⁾

일단 정비석의 전집에서의 권위는 그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1958년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과 1993년 삼성당의 『한국문학전집』을 통해 상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민중서관은 『한국문학전집』발행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문예강연회>를 연다. 민중서관의 <문예강연회>는 외면적으로 대중교육의 형태를 띤 채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문학전집』의 적극적 홍보 행사였다²⁰⁾고 볼 수 있다. 이 때 정비석은 적극적으로 이 <문예강연회>에 참여하여, 그는 「신문소설의 진로」(1차, 서울), 「문학과 생활」(2차, 영남호남지방)로 강연했다. 1차에서 백철, 유치진, 김동리, 모운숙, 박중화, 이현구, 최정희 등의 당대 문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와 함께 했는가 하면, 2차에서는 유치진, 안수길, 조연현, 설창수, 최인욱, 김현승 등과 함께 참여했다.²¹⁾ 민중서관의 이 전집은 대중문학을 대거 포함하여 질타를 받았음에도 출판시장에서 다른 전집들과의 경합에서 살아남았다. 민중서관의 전집 판매 전략과 정비석의 대중적 인지도²²⁾는 맞아 떨어졌으며 상업적으로 결탁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은 박중화, 김광섭, 백철, 유치진, 정비석이였다. 이들 모두는 ‘자유문학자협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문제가 되는 대중문학도 자유문학자

19) 해방정국의 문단에서는 염상섭, 백철, 정비석, 박영준, 주요섭, 계용목 등이 중간과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종호, 조남현 해방 50년, 한국소설, 『한국현대문학50년』, 민음사, 1995, 136쪽).

20)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한국어문학연구』 55집, 2010.8, 354~356쪽 참조.

21) 이종호의 위의 글에서 『동아일보』9월 10일과 10월 2일에 이 강연회 내용이 실린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찾아서 확인하였다.

22) 이호철이 ‘정비석과 1950년대’로 기억할 정도로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인지도는 대단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신문소설에서의 대중적 권위는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회원의 작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내성, 정비석, 최인욱 등의 작품). 민중서관에서 정비석이 편집위원으로 채택된 것은 그의 대중적 인지도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중서관의 편집위원의 구성, 작가와 작품 선정을 놓고 볼 때, 정비석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간 이유는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삼성당의 『한국문학전집』은 정비석이 죽은 후에 발간되었음에도 그가 편집위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한국문학전집 전 36권, 삼성당, 1993.

1 이광수/ 2 김동인/ 3 현진건 나도향/ 4 박종화/ 5 염상섭 이효석/ 6 채만석/ 7 이무영/ 8 박화성/ 9 최서해 계용묵 이상 김유정/ 10 최정희/ 11 장덕조/ 12 심훈/ 13 정비석/ 14 박영준/ 15 김동리/ 16 이주홍 김정환/ 17 황순원/ 18 안수길/ 19 이봉구 오영수/ 20 손소희 한무숙/ 21 유주현 정한숙/ 22 김성한 이병선/ 23 강신재 박경리/ 24 추식 박경수/ 25 선우희 이호철/ 26 서기원 하근찬/ 27 오유권 이문희/ 28 남정현 박용숙/ 29 최인훈 이병주/ 30 홍성유 정을병/ 31 정연희 손장순/ 32 유현중 윤정규/ 33 홍성원 김용성/ 34 방영웅 신상웅/ 35 김승옥 최인호/ 36 강용준 송병수

정비석은 1991년에 사망하였다. 전집 편찬 기획에 들어갔다가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편집위원은 김동리, 최인훈, 정비석, 정을병²³⁾, 강신재²⁴⁾였다. 민중서관에서 ‘자유문학자협회원’으로 백철, 유치진, 김광섭, 박종화 등과 함께 편집위원에 포함되었던 것과 대비해보면, 삼성당의 편집위원 구성은 자유문학자협회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김동리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인훈만 김동리와 얽혀서가 아니라 당대의 대중적 인지도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비석이 뽑은 작품은 민중서관본에 그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와 같다. 염상섭과 이효석

23) 정을병은 김동리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용의 『글속 풍경 풍경속 사람들-정규용의 문단 뒤안길』에서 김동리를 중심으로 한 반 조연현재 문인들이 머리를 짜내 만든 것이 소설가협회였는데, “공식 명칭 ‘한국소설가협회’의 산과역할은 오랫동안 김동리와 친분관계를 쌓아온 유주현, 이병선, 정을병이 맡았다.”고 한다(이가서, 2010, 253쪽).

24) 1949년 김동리의 추천으로 얼굴, 정순이를 『문예』에 발표한 후 문단에 등단했다.

이 한 권에 묶인 것과 대비해보면, 장덕조, 정비석 등의 작가가 각각 한권으로 편성된 것도 흥미롭다. 정비석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그가 권위가 있음을 시사한다. 김동리와 거의 같은 급으로 대우받았다고 짐작된다. 삼성당의 이 전집이 나올 무렵엔 최인훈이나 강신재 같은 중견들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시기임에도 여전히 김동리나 정비석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문단 내에서의 권위가 그때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말과도 같다. 삼성당 전집에서 정비석은 김동리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문단 내에서 김동리와 함께 문학단체를 결성하지는 않았어도 순수·참여 논쟁이 구세대와 신세대 논쟁으로 쟁점화 될 때 정비석은 김동리 측의 기성세대였다.

정비석은 그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갔던 민중서관 전집과 삼성당 전집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문단에서 기성세대의 양대 산맥인 백철과 김동리 사이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정비석은 백철과도 친분이 두터웠으며, 김동리와도 남다른 인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비석은 평북 의주 출생으로 백철과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호철이 50년대 ‘명동의 다방문화’를 회상한 장면에는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어울려 다녔던 이야기가 나온다. 가령, “‘수선사’라는 출판사가 생겨 서북 출신들인 계용묵, 백철, 허윤석이 드나드는가 하면, 경향신문사 옆에 ‘플라워’라는 널찍한 레스토랑 같은 다방이 문을 열어, 김동리, 조연현 등 ‘청년문협’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였다.”²⁵⁾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 서북 출신 문인들끼리의 결집력이 상당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철과 정비석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문학가동맹에도 함께 가입했다 탈퇴하고 자유문학자협회 활동도 같이 했으며, 국제펜클럽대회도 함께 다녔다.²⁶⁾ 또한 정비석은 김동리와도

25) 이호철, 명동의 다방문화,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188쪽.

26) 백철과 정비석의 고향 선후배로서의 두터운 친분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철은 실제로 정비석이 힘들 때마다 힘을 실어 주었다. “사교적이며 소탈한 성격 덕분에 백철은 문단에 두터운 친분을 쌓은 문인이 많았다. 고향 후배인 정비석을 비롯해 김동리, 최정희, 박화성 등과 한때 ‘카프’ 활동을 함께 한 임화, 한설야 김남천 등 좌파 문인들이었다. 임화와의 우정은 유명해서 임화는 백철이 전향했음에도 ‘이념보다는 우정’이라며 백철을 감싸기도 했다.”(정규웅, 제 238호, 『정규웅의 문단 뒤안길 1980년대 <30> 1세대 비평가 백철』, 『중앙선데이』, 2011.11.2. 입력)

인연이 깊은데, 서정주와 함께 『동아일보』 등단 동기이기도 했으며 어떤 문학단체에 소속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철과 김동리가 해방 이후 기성문단을 대표하는 양대산맥이었듯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했다면 정비석 역시 자유롭게 둘 사이를 왔다갔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백철과 김동리는 문단 내에서의 위치와 관계없이 자주 어울렸다. 최정희는 김동환이 납북된 후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자주 문인들을 초대해 술자리를 벌였는데, 이 때 자주 어울렸던 문인들이 김동리·손소희 내외와 백철, 박연희, 정비석, 유주현, 장덕조 등이었다.²⁷⁾ 이것이 최정희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듯이, 정비석 역시 좌우익의 사상적 색깔이나 자유문협과 문협과의 대립이라든가 하는 한국 문단의 큰 흐름이나 문학사적 줄기보다 오히려 개인적인 자생력으로 이쪽과도 친분을 맺고 저쪽과도 친분을 맺어서 문단에서 권력을 형성하며 살아남은 작가이다.

전집편찬의 편집위원들을 두루 살펴보면, 주로 김동리나 백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갔을 때 정비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작가로 포함되었고, 반면 이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밀려나기도 했다. 그가 1970년대에 잠시 전집에서 선택되지 않고 단편집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전집편찬에서는 굳건히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문학의 정전화(기본적으로 문학사나 이데올로기)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인맥이나 문단에서의 친분으로 권력을 형성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정비석이 관계하지 않았던 인물들은 1950년대 문단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형성된 신진세력

27) 50년대 최정희 역시 각종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는 이렇게 형성한 그의 인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희가 집에 문인들을 초대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화투놀이 ‘쌈다’판을 밤새도록 벌인 멤버들에게도 역시 당대 기성세대의 거목인 백철과 김동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정희가 살아남은 것 역시 문단 내에서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느냐, 어느 편에 줄 섰느냐보다 그의 인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규웅, 「최정희의 파란 많은 삶을 닮은 두 딸」, 『글속 풍경 풍경속 사람들』, 이가서, 2010, 88쪽). 백철과 김동리는 사석에서는 오히려 자주 어울리며 놀았다. 후에 가서 김동리는 조연현과의 대립관계가 더 깊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당의 『한국문학전집』에 장덕조가 한 권 분량을 차지하고 딱 하니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때 같이 어울려 놀았던 김동리, 정비석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간 것 때문임이 분명하다. 50년대는 이처럼 문단 내에서의 권력이나 지형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도 전집편찬의 주요 변수로 작동했다.

인 『사상계』쪽 문인들이다.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선우휘 등이 1950년대 전후문학파로 알려진 반면,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1950년대 작가로 거론되지 않는다.

정비석은 백철이 문학사에서 김동리와 함께 토속적 경향의 작가로 자리 매김한 대로, 2005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간행된 전집에서 계용묵, 김동리, 황순원과 함께 나란히 묶이게 된다. 정비석이 문학사에서 30년대 후반의 토속작가로 남은 것은 백철의 평가 때문이다.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에서부터는 문학사에서 누락되는 작가였지만 전집에서는 지속적으로 선택되는 작가였다. 문학사에서는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전집에서는 포함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전집편찬의 논리와도 무관하지 않을 법하다. 문학사 기술보다 전집편찬은 일단 대중의 수요가 가장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작가와 작품의 권위가 대중적 인지도와 맞아 떨어지면서 전집은 정전화의 한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1950년대 정비석의 대중적 권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정비석의 대중적 권위는 주로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당시 추천제를 통해 신인이 등단하는 제도로 문단권력이 확장되어 나갔지만,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신인들에게도 발표 지면 확보가 어려웠다. 이들에게 가장 큰 지면은 신문이었으나 신문연재소설은 주로 기성세대의 문인들로 꽉 차 있었다. 염상섭, 박계주, 김광주, 김말봉 등을 비롯하여 정비석, 장덕조, 김내성, 최인옥, 박영준 등의 기성 작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신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지경이었다.²⁸⁾ 정비석의 대중적 권위는 신문연재소설에서 확보되었으며, 그로 인해 신문을 통해 등단하는 신춘문예 제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추천제의 선자만큼 신춘문예의 심사위원들도 당시 권위 있는 사람들로 위촉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비석은 『서울신문』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²⁹⁾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대중적 권위를 쌓은 정비석이 민중서관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민중서관에서 주최하는 문예강연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은 전

28)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36집, 2009.6, 420쪽 참조.

29)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36집, 2009.6, 각종 일간지 신춘문예 심사위원 표 참조, 425~431쪽.

집편찬에서 그의 대중적 권위를 확고하게 해 준다.

정비석은 전집편찬에서 한편으로는 대중적 권위로 명성을 쌓아 포함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단에서 권력을 쌓아 편집위원으로도 들어가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는 문학사나 전집에서 대중성을 확보한 작가가 아니라 토속적인 작품 경향을 지닌 순수문학의 작가로 기록된다. 『자유부인』의 작가로 대중적 명성을 얻어 전집에 들어가야 할 작가로 분류되었고, 마침 순수문학 진영의 논리에 들어맞는 「성황당」이란 작품도 있었다. 정비석은 운이 좋은 작가이면서도 정치적 생명력이 뛰어난 작가이다.

결국 문단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하는가 혹은 문단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친분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는가 등이 전집에서 선택되고 배제되는 논리로 작동한다. 문학적 가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달랐다. 좌익논쟁, 순수참여 논쟁에서 상대방 측의 작품은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배제되었다. 순수문학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에서는 대중문학이 배제되었으며, 우익집단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 좌익은 일단 배제되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단권력은 전집의 정전화 논리에서 가장 강력한 작동 원리가 되는 셈이다. 정비석은 백철, 김동리와 친분으로 문단에서 권력을 얻으며 자생할 수 있었고, 기성세대와 함께 한 문단권력으로 인해 동세대 작가들이 전집편찬 과정에서 사라질 때에도 굳건히 견재할 수 있었다. 최인욱이나 최태응, 김이석 등은 문단에서 정비석만큼 입지를 다지지 못했던 것이다.³⁰⁾

5. 결론: 전집의 정전화 논리와 정비석의 문학사적 위치

전집에서 정비석은 『자유부인』의 작가가 아니라 「성황당」의 작가이다. 정비석은 전집(기본적으로 전집이 갖고 있는 권위적 속성)을 통해 독자에게 대중문학가가 아니라, 순수문학가(토속성이 짙은 작품 경향, 50년대 작가)

30) 최인욱과 김이석은 일찍 사망했고, 최태응은 1979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샌프란시스코 번두리에서 살았다. 지인들에게 근황 정도만 알리고 지냈다. 문단의 핵심권력과 친분을 쌓으며 문단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정비석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전집에서도, 문학사나 정전에서도 잊혀진 작가가 되어 갔다.

아니라 30년대 작가로 기억된다. 30년대 후반에 등단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1950년대 이후이면서도 문학사에서 1930년대 「성황당」의 작가로 기록되며, 김동리, 황순원과 함께 토속세계를 그리는 작가로 평가된다. 문학사에서 1930년대 후반의 문학세계는 토속성, 향토성으로, 1950년대 문학은 불안과 부조리, 실존주의 문학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1950년대 문학가의 부류에 정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최인옥, 김정환, 최태웅, 김이석, 김동리 등과 함께 1930년대 후반을 토속성의 문학으로 규정짓는 작가이다. 그러나 전집에서 30년대 후반 문학의 토속성을 대표하는 작가로(김동리는 예외로 하고라도) 정비석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정전화 논리에서 문학사적 가치 기준보다 문단 권력의 작용이 컸음을 증명한다. 최인옥의 「월하취적도」는 김동리가 다른 이름으로 낸 것으로 오인할 만큼 김동리의 문학세계와 흡사하다고 평가받았으며, 그의 초기 작품들은 지방색이 짙은 토속세계를 그렸다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집편찬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최인옥(1972년 사망)은 정비석(1991년 사망)보다 훨씬 일찍 사망했다. 김이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오래 살아남은 작가가 전집에서도 오래 살아남았다는 논리가 된다.

순수문학 위주로 전집을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보면, 정비석의 장편은 배제되어야 마땅하고 정비석 역시 배제되어야 할 작가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전집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대중적 인지도나 출판사의 판매 욕구 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비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작가로 분류된다. 전집편찬에서 「성황당」으로 살아남은 정비석을 1930년대 후반의 토속작가들의 반열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부상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부인』이라는 화제작이 몰고 온 인기였다. 전집에서 정비석은 『자유부인』의 작가이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 당시 출판사들이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대중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을 때, 정비석이라는 작가가 지닌 대중적 권위는 출판사나 전집 편찬자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마력이었을 것이다.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한 것도 정비석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중문학을 배제하고 순수문학을 지향하려는 전집의 정전화 논리 때문에 『자유부인』을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전

집의 편집위원들이 택한 작품은 「성황당」이었다. 단편 위주의 한국문학사에서 「성황당」은 2005년 창비 전집에까지 살아남는 작품이 된다. 정비석이 라는 작가를 전집편찬에서 포함시켜야 하는데 마침 「성황당」이라는 적절한 작품이 있었던 것이다.

정비석이 문단에서 백철, 김동리 등과 친분을 형성하여 권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성황당」이라는 순수문학의 진의와 맞아 떨어지면서도 문학적 가치를 내포한 작품이 없었다면 전집에서 선택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병옥은 “예술성과 통속성 사이를 확연하게 구분지을 경계선이 없기는 하나 「성황당」은 그 경계선 위에 멋진 조화를 이룩한 작품이다. 물론 거기에는 자연의 질서가 긴 그림자 같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가 주는 완성미가 단편으로서 더할 수 없는 성공인 것이다.”(『월간문학』, 1971년 8월호, 256쪽)라며 당시의 시대사조와 엮어 1930년대 후반의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표방하는 신세대의 무언의 확증 같은 것이라며 「성황당」의 문학적, 문학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정비석의 「성황당」은 단편으로서의 완성미, 김동리와 같은 토속적 소재를 다룬 순수문학, 1930년대 후반의 신세대 문학(인간 본연의 원시적 생명력)의 선두로 평가되면서,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단 한 편으로 살아남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성황당」은 정전화 논리에서 성이나 애욕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순수문학의 전형’으로 각인되기에 이른다. 더불어 정비석은 문학사에서 『자유부인』의 작가가 아니라 「성황당」작가로, 1950년대 작가가 아니라 1930년대 후반의 작가로 기억된다. 정비석의 「성황당」을 높이 평가한 백철이나 김병옥은 정비석이 본연의 예술성 세계에서 이탈하여 대중작가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계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황당」이 더욱 가치 있는 작품이라 역설한다. 여기에서 문학사 기술이나 전집편찬에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대중문학 배제의 논리를 엿볼 수 있다. 정비석은 정전과 비정전,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이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있는 작가로 한국문학의 정전화 논리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를 중심으로 전집편찬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한국단편문학전집, 백수사, 1958.
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1958.
신문학 60년 대표작 선집, 정음사, 1968.
한국장편문학대계, 성음사, 1968.
한국단편문학대계, 한국문인협회 기획, 삼성출판사, 1969.
한국대표문학전집, 삼중당, 1971.
신한국문학전집, 현대문학사 기획, 어문각, 1971.
삼성문고, 삼성출판사, 1972
한국대표단편문학전집, 정한출판사, 1975
삼성관 한국현대문학전집, 삼성출판사, 1978.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86.
한국문학전집, 삼성당, 1993.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한국문학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4.
20세기 한국소설, 창작과 비평사, 2005.

2. 단행본

-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200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78.(현대문학에 1955~56년 12월까지 연재,
1961년 인간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김윤식·김우중 외 30인 지음,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박스, 1994.
정규웅, 『글속 풍경 풍경속 사람들-정규웅의 문단 뒤안길, 이가서, 2010.

3. 연구논문과 비평

- 김병욱, 「정비석의 문학·「성황당」을 중심으로, 월간문학, 1971.8, 254~257쪽.
백철, 「한국단편문학의 40년(三), 한국단편문학전집, 백수사, 1958, 465~478쪽.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17, 2006.6, 235~272쪽.

- 이봉범,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 상허학보 20, 2007.6, 271~309쪽.
-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집』, 2009.6, 365~435쪽.
- 이중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한국어문학연구 56집』, 2010.8, 349~382쪽.
- 이중호, 「1960년대 한국문학전집의 발간과 문학 정전의 실험 혹은 출판이라는 투기」, 『2010년 하반기 상허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1, 53~64쪽.
-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37호, 2008.4, 85~124쪽.

Abstract

Cheong, Bi-seok and the logic of canonization of the collected works

Choi, Ae-Soon (Korea University)

Cheong, Bi-seok is remembered of *Seongwangdang* and *Liberal Wife*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He stands distinctive in the present literary world between *Seongwangdang* and *Liberal Wife*. Cheong, Bi-seok survived to the last in the literary collected works, in spite of popular literature writer.

Cheong Bi-seok's work selected in the collected works was *Seongwangdang*. He survived to the last in the collected works only one work, *Seongwangdang*. How did Cheong, Bi-seok live through only one work in the collected works while his generations has disappeared. To consider the logic of canonization of the collected works centering on Cheong, Bi-seok, is interested in looking at the procedure of compilation of completed works from various angles.

(Keywords : Cheong, Bi-seok, canon, the collected works, Seongwangdang, Liberal Wife, the procedure of compilation, the logic of canonization)

학술대회 발표일 : 2011년 10월 22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1년 10월 30일 정식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